

누구나 한계 없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요



여섯 살 때 왼쪽 팔을 잃은 정현숙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국장은 20년 넘게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자립을 위해 일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자리한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은 제법 소문난 일터다. 안정적으로 일하며 자립할 수 있고, 거기에 따뜻한 돌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2003년 보호작업장 설립부터 함께 한 정현숙 사무국장은 보호작업장의 모든 것을 자부심으로 여긴다. 더 좋은 일감을 위해, 더 많은 월급을 위해, 더 따뜻한 환경을 위해 분주하게 뛰는 시간이 녹아든 성과이기 때문이다. 장애를 뛰어넘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정현숙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자립에 누구보다도 진심이다.

50배의 성장, 좋은 일자리의 힘

정현숙 사무국장은 여섯 살 때 순간의 사고로 왼쪽 팔을 잃

었다. 하지만 그의 밝고 유쾌한 에너지는 한쪽 팔의 부재를 금세 잊게 만든다.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한 보호작업장도 이 당차고 열정적인 추진력에 많이 기대었다. 투명한 행정과 회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감을 찾기 위해서라면 밤낮없이 뛰어다녔다.

“초기에는 조립, 포장 등 단순 임가공 중심이었어요. 방산시장을 찾아 일감을 달라고 홍보하고, 납기가 빠듯하면 야간, 주말에도 직접 남아 잔업을 했죠. 야근 수당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안 그래도 낮은 단가인데 수금마저 늦더라고요. 매달 월급 날이면 은행 마감 전에 거래처에 독촉 전화를 돌리며 빠듯하게 월급을 처리하곤 했죠.”

시장 사람들도, 은행 직원도, 거래처 담당자도 똑 소리 나는



보호작업장 사무실에서 직원과 얘기하는 정현숙 사무국장.



정현숙 사무국장이 실크 인쇄를 마친 기관 판촉물을 보여주고 있다.

정현숙 씨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사이 마스크, 텀블러, 우산, 수건, 현수막 등 기관과 기업의 판촉물 제작을 주력으로 하는 보호작업장은 꾸준히 성장했다. 첫째 6,700만 원이던 연 매출은 2022년 35억 6,600만 원을 기록했고, 근로 장애인의 평균 급여 역시 24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높아졌다. 단순노동의 낮은 생산성에 한계를 느끼고 과감한 변화와 투자를 이끈 것이 성장의 비결이었다. 정현숙 사무국장은 판촉물에 인쇄를 더해 부가가치를 높일 생각으로 인쇄기술자와 디자이너 등 전문 인력을 과감히 채용했다. “현재 41명의 근로 장애인과 전문 인력, 사회복지사 등 20명의 종사자가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사자 중 9명만 인건비 보조금이 나올 뿐 나머지는 직접 수익을 내서 월급을 주는 구조거든요. 생산성과 매출 향상이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를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스크 작업장에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인허가를 받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도 지칠 겨를 없이 신규 사업의 성공을 절실하게 바랐을 뿐이다.

맞춤형 직무, 관심과 애정이 비결

장기근속자가 많은 일터라는 점은 정현숙 사무국장이 가장 자신 있게 자랑하는 부분이다. 노무 관련 쟁의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퇴직자도 4명밖에 되지 않는다. 정현숙 사무국장은 복지 현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2008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 배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 깊게 보면 불수록 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애정은 더 깊어졌다. 근로 장애인 부모 사이에서는 이미 ‘천사’로 불릴 만큼 따뜻하고 세심한 성품이 잘 알려져 있다.

“지구력이 돋보이는 직원은 불량 검수를, 소근육을 잘 쓰고 집중력이 뛰어나면 실크 인쇄를, 힘이 세고 활달하면 물건 배송을 맡기는 식이죠.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예산도 직원들의 요구에 맞게 별도로 편성했는데 놀이동산, 뮤지컬 관람, 암벽 등반 등 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활동이 참 귀하더라고요.”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 장애인은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정현숙 사무국장은 근로 장애인 모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사업장의 매출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다. 20년 동안 보호작업장을 탄탄하게 키워왔듯, 팔 하나를 잃는 사고에도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했듯 정현숙 사무국장에게 한계란 없다.  글 강현숙